

문화수도 발목잡는 광주시 문화행정

1 컨트를 타워가 없다

‘윗선’만 바라보는 문화정책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시의 문화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광주문화예술센터 위탁 문제를 계기로 산재한 광주시 문화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문가 좌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과도한 개입...문화재단·정책실 제역할 못해

‘자스민’ 등 눈치보기가 낡은 실패작 수두룩

2011년 광주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쏠렸다.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이하 정책실)과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컨트를 타워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광주 문화 행정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재단은 출범 2년이 넘도록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정책실 역시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기관의 파트너십은 전무로 상태로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 문화 정책 컨트를 타워가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책실의 역할 부재다.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 대신 지나치게 시장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정책 밑그림을 그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계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민간단체 위탁 추진(광주일보 10월 31일자 1면)과 관련, 현 운영 주체인 광주 문화재단과 단 한차례 상의도 없었던 것은 시가 재단을 ‘파트너’가 아닌, 관리·감독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

번 사태는 시가 재단을 정책 파트너가 아닌 감독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단 뿐 아니라 다른 산하 기관 역시 더욱 더 시 눈치보기에 급급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실은 문화예술진흥과 등 4개과 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에 기재된 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등으로 대부분 정책실의 사업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문화재단의 인력은 기간제를 포함, 100여명 수준. 일부에서는 시가 진행해왔던 많은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옮겨왔지만 정책실 직원 수는 문화재단 출범 전과 동일한 점을 들어 행정력 낭비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 전문가’임을 자임하는 광주시장의 지나친 개입이 문화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연 무용수는 18명, 출연진들의 옷은 오방색이면 좋겠다.” 지난해 공연된 광주 브랜드 작품 ‘남을 위한 행진곡’ 제작 당시 광주시장의 발언 내용이다.

다행히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나치게 세밀한 가이드 라인은 직원들이 시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고소관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전해진다. 지난 2011년 광주시장의 에디터러 페스티벌 MOU 체결

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자스민 광주’의 참패가 대표적이다.

시장이 제안해 시작된 광주세계아리랑축제 역시 두차례 행사를 치렀지만 올해 6억원이 투입된 도청 앞 본행사의 경우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성과가 전무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광주문화관 부지 선정 문제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체 게바라 셔츠’ 문제 모두 지나친 눈치보기가 낡은 현상이다.

문화계 인사 A씨는 “광주는 아래로 부터 정책 제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이 이야기를 하면 행정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실의 복지부동에 대한 문화계 인사의 일침은 빠아프다. 문화계 인사 B씨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화 정책과 아이디어 등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눈치가 보여 제대로 발언을 못한다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언제부터인가 그런 역할조차 시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구색맞추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홍인화 광주시의원은 “현재 시의 문화 정책은 밑에서부터 입안되는 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문제”라며 “문화재단과 정책실이 정책적 파트너로 문화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4 대학원 신입생모집

신한대학원 특별전형
2013년 11월11일(월)~22일(금)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2013년 12월 2일(월)~10일(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062)605-1115



목포항 조기 품어

남해안의 조기잡이가 품어를 이루면서 4일 목포 북항 선착장에서 그물에 걸린 조기를 떼는 어민들의 손길도 더욱 분주해졌다. 일본의 수산물 방사능 공포로 인한 소비 감소로 한산했던 북항 일대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식품부·해수부 장·차관, 23개 산하기관장

광주·전남 출신 0...60% 영남 편중

전통적인 농·수산물로 꼽히는 광주·전남지역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차별을 넘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해수산부 장·차관은 물론 산하기관에서조차 영남 인사 편중으로 호남 출신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 정책질에서 “권력기관인 4대 사정기관(국정원·검찰청·경찰청·감사원)과 3대 경제권력기관(국세청·금융위·공정위)은 물론 농식품부, 해수부 장·차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도 단 1명의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통적으로 전국 제1농업, 전국 제1수산지역인 광주·전남과 밀접한 농식품부, 해수부 장·차관은 그나마 지역 균형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 인사가) 임명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농식품부 장·차관을 비롯해 산하 3개 청장 등 23개 산하 공공기관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영남인사가 그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역 편중 및 차별 인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축은 판단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이동필 장관(경북 의성), 여인홍 차관(부산)이 영남 출신인데다 산하 9개 공공기관(2개 기관은 공직이어서 제외) 중에도 이양호(경북 구미) 농촌진흥청장 등 영남 출신이 6명(66.7%)이나 됐다.

또 해양수산부도 윤진숙 장관(부산), 손재학 차관(부산)이 영남 출신이었으며 산하 10개 기관(2개 기관은 공직이어서 제외) 중 김석균(경남 하동) 해양경찰청장 등 영남 출신이 6명(60%)이나 됐다.

김 의원은 “사정·경제 권력기관은 차지하더라도 국민 민생기관인 농식품부·해수부마저 영남 출신 인사가 독차지하고 있어 호남인사, 특히 광주·전남 인사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덩이 복지비용에 이번엔 교부금 660억 감액

광주시·전남도 내년 예산편성 비상

광주·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복지비용 부담에 이어 올해 국세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각 시·도는 오는 11일까지 관할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 내국세의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지방예산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2조원 가량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내년 교부세가 올해 대비 7% 가량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라고 당부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6조원 줄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세금은 추경예산에 대비해서도 8조2000억원 가량 덜 걷혀 연말에 총 세수결손액은 14조2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은 2조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교부세 5660억 중 160억원을 줄인 5500억원만 예산에 반영했으며, 전남도는 교부세 95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한 9000억원만 책정해 예산을 짜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만 660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시·도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급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상 유례없는 복지비용 증가에 지방선거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초강도의 쥐어짜기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수는 늘지 않고, 부담해야할 복지비용 증가에다 교부세 등 정부지원액은 감소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보라여행사 (순천 엔씨백화점 2층)	061)724-1688

[인천출발] 석가장 전세기(면산/태항산)
2013년 10/12일~11/20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CNP888-TW5] ◆구원산+태항대입국◆
태항산 4일 549,000원 ~
매주 수요일 출발
*특전: 라텍스 목재계 제품, 도화과 관광
*별첨: 라텍스 목재계 제품, 도화과 관광
*별첨: 라텍스 목재계 제품, 도화과 관광

[CNP888-TW5] ◆태항대입국+평요+구원산◆
태항산/면산 5일 749,000원 ~
매주 토요일 출발
*특전: 라텍스 목재계 제품, 도화과 관광
*별첨: 라텍스 목재계 제품, 도화과 관광
*별첨: 라텍스 목재계 제품, 도화과 관광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의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발행신고 Tel 1577-1233 ■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가세요!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하파케주입] 앙코르왓 4일/5일 599,000원 ~ *일일비행* 20석항공(앙코르왓+5대특석) *호텔: 앙코르 하이라드 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전: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참여서 발급, 전선마사지	[하파케주입] 앙코르왓 4일/5일 799,000원 ~ *일일비행* 20석항공(앙코르왓+5대특석) *호텔: 앙코르 하이라드 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전: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참여서 발급, 전선마사지
[하파클래스] 앙코르왓 4일/5일 999,000원 ~ *일일비행* 20석항공(앙코르왓+5대특석) *호텔: 앙코르 하이라드 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전: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참여서 발급, 전선마사지	[하파클래스] 앙코르왓 4일/5일 1,149,000원 ~ *일일비행* 20석항공(앙코르왓+5대특석) *호텔: 앙코르 하이라드 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전: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참여서 발급, 전선마사지

JDX와 함께하는 제27차 글로벌 골프챌린지투어

하나골프 캄보디아 씨엠립 5일 부영 C.C

[AVG161131128021/KE1]
출발일 11월 28일(목) 054H ▶ 샌슈리 1,399,000원 ~

[AVG161131128022/KE2]
출발일 11월 30일(토) 036H ▶ 골프+관광 1,249,000원 ~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호텔: 씨엠립 샌슈리 호텔(5성급)
*포함 및 특전사항
① 캄보디아 5성급 ANGKOR CENTURY HOTEL, 투숙
② 골프 그린피, 가이드/기사 TIP, 11월 30일 대회당일 전통커트/캐디미팅 포함
③ 캄보디아 도착비(자발금) \$20 포함
*불포함사항: 대회당일 외 캐디미, 캐디미, 전통차, 클럼/수조렌탈, 기타 개인경비

상품정보
*대회코스: BOOYOUNG G.C.(舊. ANGKOR LAKE G.C.)
*대회진행 및 방식: 세미샷건 or 풀샷건/신페리오 방식
*대회시상: 신페리오 우승, 메달리스트, 통기스트, 나이라스트, 출인원인먼트
*시상품: 트로피, 캐디백, 보스탄백, 골프클럽, 골프바디, 왕복 항공권 등
*출인원시상: 스타트루트 2인 무료 여행권 + 세인트나인(6-7) 20SET
*시상품 및 경품: JDX협찬 경품, 항공권

대회소개

하나투어 창립 20주년 기념 Festival
고객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기간: 2013년 10월 1일 ~ 11월 30일

무인출발
[CBPF01-02G]
북경(베이징) 4일 399,000원 ~
출발일 11월 매주 화요일 출발
*호텔: 중 4성급 2박/총취원 1박
*특전: 만리장성 케이블카, 청지서커스, 발마사지

상해/주자각/소주/항주 5일 449,000원 ~
출발일 11월 16일(토), 23일(토)
*호텔: 4성급 오션탈호텔미르
*특전: 아일랜드 호텔부터, 코코넛 오일마사지, 세일링 보트, 시원한 배수 혹은 음료 제공

인천출발
[APP171]
9대특전NO1+호텔+디럭스클럽업글 세무 4/5/6일 349,000원 ~
출발일 11월 매일
*호텔: 콘돌리움 아슬라르미르
*특전: 프라이빗을 체험, 전일왕십자세움, 세계 인기 배우 안마구 1명(1시간만행)

호랑이투어+세일링보트 보라카이 4/5일 569,000원 ~
출발일 11월 매일
*호텔: 4성급 오션탈호텔미르
*특전: 아일랜드 호텔부터, 코코넛 오일마사지, 세일링 보트, 시원한 배수 혹은 음료 제공